

## 2018년 3월 3일 “(성경의 큰 숲 보기 7) 신명기 - 말씀, 말씀, 말씀”(신 10:12-16)

### <도입>

신명기 히브리 원어 제목은 “말씀들”, 신명기(Deuteronomy)는 헬라어 번역에서 나온 말로서 ‘율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신명기를 구분하면,

1. 1:1~5 머리말
2. 1:6~4:43 첫번째 말씀: 역사적 회상(시내산~지금)
3. 4:44~26:19 두번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해설
  - 3.1. 4:44~11:32 일반적인 조항들
  - 3.2. 12:1~26:19 구체적인 조항들
4. 27:1~30:20 세번째 말씀: 축복과 저주
5. 31:1~34:12 맺음: 지도자 계승과 모세의 축복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2 세대에게 무엇을 가장 말해주고 싶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간 출애굽한 장정들 중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이 부모세대를 지켜본 2 세대는 지금 약속하신 성취(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고, 또한 인간의 복됨과 타락을 잘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도록 말씀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본론의 두 주제(언약 관계와 순종)를 보겠습니다.

### [1]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라

아브라함때부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특징을 지닙니다. 어느 책 보다 ‘언약’이라는 말이 신명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언약의 관계에서는 존중과 수준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은 관계(예: 결혼)에서 좋고 나쁠 때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광야 1 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정식 관계를 맺었지만(출 19 장). 번번히 관계가 상했습니다. 불평, 원망, 다툼, 반역 등... 사람사이에서 일어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예:** 민 20 장 가데스에서

백성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다툽니다. 모세는 화를 내며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 결과, 물이 풍성하게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주님과 다투었다’(20:13) 하고, 또 모세/아론도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다’(20:24)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분을 냈지만 물을 주셨습니다. 이정도 불평하는 것은 괜찮고 이 정도 화낸 것은 이해하시니까 물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양쪽 모두와 다투었다고 말씀 하십니다.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차원과 백성의 순종의 수준에 대한 차원은 별개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당한 참 순종, 성도의 새로운 성품과 방식을 길러낼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 [2] 진정한 순종

레위기 개관에서, 순종은 자신의 틀과 주장을 유보하고 말씀(율법)을 앞세우는 예배자로서의 중심과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순종에 실패하는 것은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의 내면이 두려움과 수치에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방식과 주장을 포기하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두려움이 일고, 또한 예고가 상하므로 수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의 안위가 깨지고 내면의 약함/약함이 드러날까 봐 자신의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런 자기중심성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 다해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세요.

4:29; 6:5; 7:9; 8:6; 10:12, 20; 11:1; 11:13, 22; 13:3-4; 19:9; 26:16; 28:1-2, 9, 13, 58; 30:2, 6, 10, 16, 20; 31:12-13 (아래에 몇 구절 참고)

**32:47** “율법은 단지 빈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이 요단 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우리 현실에 맞게 표현해 보세요)

Christopher Wright ‘신명기는 구약의 심장박동’ 사람의 생명은 심장이 피를 힘있게 펌프질 해줄 때 왕성합니다. 위의 성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읽고 지키는 것은 허락하신 영생(광야세대에게는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는 영혼의 펌프질입니다.

**<맺음>**

신명기 권면에 비추어 자신의 예배에 대한 자세와 내적 동기를 성찰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신뢰)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또한 각자 기도생활과 말씀 묵상에 관한 내면의 동기가 어떠한지, 성령의 비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사랑함’과 ‘말씀에 붙들림’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2019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모세가 신명기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서로 토론해보고,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상황에 비추어서도 생각해 보세요.
2. 나의 현재 신앙생활의 동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 16 일(토)에는 연중 교회 행사로서 ‘선교를 위한 음식잔치’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임할 때 내게 필요하거나 기억하고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세요.

**성구:**

**4:29**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인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6:5**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7:9**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8:6**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11:1**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11:13, 22**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